

광주, 광공업 생산 3월엔 늘었는데...

호남통계청 발표 3월 산업 동향

지난 달 중국산 자동차 부품수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주 광공업 생산은 늘었지만 전남지역은 국제 유가 불안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는 3.7% 올랐지만, 전남은 0.5% 줄었다. 전국 평균 광공업 생산은 7.1% 오른 가운데, 전남을 포함한 서울·대구·경북 등 9개 시·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달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 생산자인 석유정제(-7.6%)·화학제품(-5.3%)과 광양제철소 '1차금속'(-8.7%) 부문 생산이 급감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로 3.7% 올라 ...4월 코로나 확산에 타격

전남, 여수산단·광양제철소 생산 급감해 감소세로 전환

석유정제와 화학제품 생산이 줄어든 데는 원유 공급 과잉이 바로 반영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됐다. 석유정제, 고무 및 플라스틱 재고량 역시 각각 13.4%, 22.9% 늘어났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원유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수 없었다"며 "1차금속 생산의 경우 지난 2월 자동차 생산이 급감한 영향을 받아 철판 등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이 다소 회복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광주 자동차 생산액은 19.0%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3.7%)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4월 주요 수출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영향과 경제 봉쇄 영향이 제조업 수출과 생산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월 광주지역 자동차 재고는 레저용 승용차, 대형버스 등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9% 늘어남 상태.

이외 고무·플라스틱(4.3%),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3.1%) 생산은 늘고 에어컨·공기정화기 등 기계장비(-8.8%), 금속가공(-29.2%) 등은 생산액이 감소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다다랐던 지난 달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감소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 10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광주지역 백화점·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5%나 감소했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경향으로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도 지난해보다 10.6% 줄어 들었다. 건설수주액의 경우 광주는 전년 같은 달 대비 55.9%, 전남은 58.0% 각각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47.56 (+13.47) ↓ 금리(국고채 3년) 1.006 (-0.027)
- ↑ 코스닥 645.18 (+0.25) ↓ 환율(USD) 1218.20 (-7.00)

아시아나항공 인수 늦어진다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재무구조 악화에 주식취득 연기

항공업계, 인수 포기 관측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수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9일 공시를 통해 당초 이달 30일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예정일을 삭제, 변경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주식취득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운항 중단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하자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HDC현산은 이달 초로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연기한 데 이어 이달 하순 예정했던 회사채 발행 계획도 중단했다.

HDC현산은 당초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자금으로 산은과 수은 차입금 1조1천700억원 정도를 갚을 예정이었다.

현산은 이달 공시에서 주식 취득일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구조(금융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경우 구조매매계약 제5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

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로 변경했다.

신주(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는 신주인수계약 제4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의 다음 날로 정했다.

주식 취득일 날짜를 따로 특정하지 않고 유상증자 등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계약을 종료(종료)하겠다는 의미이다.

또다른 선행조건 중 하나인 해외 6개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는 현재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의 승인이 떨어졌고 러시아 한 곳만 남은 상태다.

항공업계와 증권업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그사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HDC현산측의 고심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HDC현산은 여전히 '인수 의지'에 변함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항공업계의 경영 정상화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악의 경우 HDC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가입자 3만 명 돌파...7월까지 이벤트 진행

프로야구무관중인증샷 이벤트

가입자 3만 명을 돌파한 광주은행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이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를 진행하며 각종 이벤트를 벌인다.

광주은행은 오는 5월5-10일 '2020 프로야구 무관중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은행 로고에 담긴 KIA타이거즈 경기 중계 장면을 찍어 개인 SNS(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광주은행 #무관중인증샷을 달아 올리면 된다. 당첨자 100명에게는 KIA타이거즈 공식 응원 스포츠수건이 주어진다.

다시 관중이 참석할 수 있는 경기가 열릴 경우에는 광주카드 결제 때 챔피언스필드 1층 KIA타이거즈샵 15%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 ▲KIA 예·적금 보유 고객 대상 기아챔피언스필드 K9석 입장권(2인 8좌석) 주점 ▲KIA타이거즈샵 15% 할인쿠폰(선착순 2만명) 제공 ▲한정판 KIA타이거즈 입출금통장 3만부 배부 등도 진행된다.

'KIA 예·적금'은 5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으며, KIA타이거즈 성적에 따라 최대 0.5%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KIA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정액정리식 상품으로, 기본금리 1.3%에 예금과 동일한 조건의 우대금리(최고 0.5%포인트)를 제공되는 한편, 이벤트 우대금리를 최대 연 0.9%포인트를 제공해 최고 연 2.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해, '송가인의 앞새레터' 지역민과 소통 이벤트

손편지 보내면 경품 제공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앞새주 홍보모델 '송가인의 앞새레터'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송가인의 앞새레터' 이벤트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광주·전남지역 500여 업소에 비치돼 있는 보해양조 분사 주소가 적힌 엽서 '앞새레터'에 앞새주와 보해양조, 송가인과 우리동네 자랑 등 다양한 주제를 손편지로 작성한 뒤 업소 우편함에 일반 우체통에 넣으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앞새주 모델 송가인의 답장도 받아볼 수 있으며, 전남지역 특산품을 비롯해 송가인 모자 등 경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한달간 진행된 '송가인의 앞새레터' 이벤트에는 약 500건의 사연이 접수되는 등 인기를 끌

었다.

앞새주를 좋아하셨던 아버지와 추억을 소개한 사연부터 송가인 덕분에 진도가 유명해져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진도 어린이 등 다양한 사연이 접수됐다.

앞새레터 설치 장소가 광주·전남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도 앞새레터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해는 수도권 업소에도 앞새레터를 준비할 방침으로, 접수된 사연을 보해양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창립 70주년 행사를 지역민과 소통하는 이벤트로 준비해 봤다"며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사연을 꾸준히 발굴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도·농상생 금요 직거래장터

수완동 비아농협서 5월8일 개장

광주지역 15개 농·축협이 참여하는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가 오는 5월8일 올해 첫 문을 연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는 지난 28일 금요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8일 광산구 수완동 광주비아농협 앞에서 장터를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매주 금요일 열리는 장터에서는 광주 15개 농축협의 조합원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 50여 종을 시중가보다 최고 10~3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강형구 본부장은 "올해도 광주시민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유통비용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협, 취약계층 150가구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전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왼쪽 네번째)와 농협 화순군지부(지부장 김천국)는 29일 화순지역 취약계층 150가구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조선의 신작 시집

꽃, 향기의 밀서

본시 땅위에 길이 없어 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 꽃도 풀이었다가 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꽃이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꽃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내뿜어야만 꽃의 생애가 보이고 향기의 밀서도 받게 되는 것이다. 빛으로 오롯이 쌓아올린 철학적 성찰이 침묵의 결박을 풀고 물마루를 건너와 이야기하는 물옥잠의 향기로 밀어 귀를 기울인다. 꽃의 속삭임에는 애처로운 누이의 생애와 어머니의 새카맣게 애간장 타는 속삭음이 있다. 꽃마다 대지의 조근조근한 숨결을 건너온 계절이 있다. - 김광희시인

조선의 시인은 꽃의 시인이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한 사물을 호명해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조선의 시인은 우리의 인식망에서 멀리 있던 실제 꽃들을 찬찬히 불러들여 고유의 향기를 부여했다. 꽃은 향기로 숨 쉰다. 그래서 꽃은 향기로 실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시인의 꽃시는 꽃을 잃은 우리 시단의 꽃시이요, 향기 잃은 세상의 꽃씨다. 시인의 시집을 읽노라면 마치 시인이 테리고 나온 꽃들과의 나들이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향기 풀풀 나는 초대연에 한껏 취하고 만다. - 김춘수시인



시인 조선의

- 조선의 프로필 |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김만중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현. 서은 문병관 문학연구소 초빙교수
- 기독신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 조선의 시집 |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